

# 건강 상담실

이번호 해답자

- 김사말 <박애병원장>  
 김승윤 <중앙의대 내과 교수>  
 김이환 <고려의대 정신과 교수>  
 이주환 <이한수 외과 원장>  
 정희민 <서울병원장>  
 박정환 <서울의대 소아과 교수>

몸이 비대하고 술과 밥만 먹는데

**문** 저는 29세의 청년으로 키에 비해 몸이 너무 커다래 비만증에 걸려 있습니다. 먹는 음식은 밥과 술, 야채 몇가지를 먹을 뿐입니다.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나 과일 등은 일체 먹지 않는 성격입니다. 몸에 비해 운동을 하는데는 저항을 받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가끔 구역질이 나는데 혹시 위장이 나쁜 탓일까요? 또 잠버릇이 심하고, 술을 마시면 코를 고는 버릇도 있습니다. 치료방법은 없을까요.

<전남 신안군 하의면 응곡리 1구 정행국>

먼저 간 검사부터

**답** 구역질이 나는것은 간(肝)이 나쁠경우도있고 소화기장애로 인한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간 기능검사를 하시는것이 우선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비만증에 대하여는 알콜과다로인한 콜레스테롤 축적이 있으므로 술의량을 줄이고 몸무게 조절을 위해 적당한 운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술을 마시면 코를고는 버릇에 대하여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임으로 걱정하지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박애병원장 김사말>

다리 힘줄이

튀어 나와 고민

**문** 저는 27세의 미혼 청년입니다. 이곳에서

우체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왼쪽다리가(오금장이 밑부터) 발부분까지 힘줄이 룩룩거리져 보기가 흉하게 노출되었습니다. 오른쪽다리나 기타 몸 부분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처음 증세가 나타난 것은 6년정도 됩니다. 별로 아프지는 않으나 많이 걸으면 약간 통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북 장수군 변암면 노당리 장두영>

정맥류(靜脈瘤)

증세인듯

**답** 귀하의 경우는 정맥류라고 하는 병인것 같습니다.

이 병은 서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서 오는 병으로서,

치료방법으로는 약방에서 탄력성이 있는 붕대를 구입하시어 환부를 감고 다니시면 임시로는 나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로는 좋지않은 정맥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반외과에 가서 수술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병원장 주정빈>

## 목이 뻣뻣하고 손이 떨리는데

**(문)** 저는 21세의 미혼여성입니다. 몇년 전부터 저절로 목이 기울더니 점점 심해져서 요즘은 뒷목이 뻣뻣하고 무겁고, 또 열도 납니다. 손도 떨려 다방에 차도 먹으려 못잡니다.

심장이 약한지 조그만 일에도 잘 놀려며, 빈혈도 심하구요. 스피달에는 온몸이 떨져서 리는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이겨 불려고 하면 더욱 더 떨려서 이제는 겁이 더러 납니다. 이것은 무슨 병이며, 또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강원도 홍천읍 신장대리 정연실〉

## 만성 불안신경이 의심된다

**(답)** 귀하의 경우 병명은 만성불안신경증환자 같은데 이 증상은 심리적 것으로 긴장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사람한테서 흔히 볼 수 있는 병입니다.

이 증상은 개인에 따라 근육, 팔다리 위장, 심장 등 여러 부위에 나타나겠으나 신경을 오래 쓸 경우

목덜미의 근육에 열감이 생겨 압박감, 두중감등 여러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경우 가정에서의 인간관계, 대인관계 등 긴장이 되는 근원을 파헤쳐 심적인 원인규명을 밝혀 전강지수를 푸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경증환자에게 피로를 풀기위한 방법으로는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으로서 수영, 등산, 정구등 자기에게 맞는 취미를 택하시어 즐거운시간을 갖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신체적활동을 통한 회열감으로 많은 신경증환자가 좋은 치료효과를 본것 같습니다.

〈고려의대 신경과 이병윤〉

## 이유 모를 위병으로 고민

**(문)**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가정주부입니다. 위가 늘 아프고 심할때는 속에서 무엇이 튀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생긴지 벌써 2년이 더 넘었습니다. 소화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때로는 열감이 붓기도 합니다. 이웃 병원을 찾았더니 위가 약해 그런거라면서 소화제와 정신신경안정제를 장복하라 그러더군요. 골치도 늘 아픕니다.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충남 보령군 천북면 공포리 김용자〉

## 먼저 X 레이 부터 찍어 보아야

**(답)** 귀하의 경우 위에 관한 X-Ray를 찍어보는데 이것이 선결문제이고 다음 피, 변검사등을 하여 증의 유무를 알아본 후에 적당한 치료법을 강구하여야 되겠습니다.

〈성심병원 내과 김종숙〉

## 8살 아이가 오줌을 싸다

**(문)** 8살이나 된 점의 아이가 밤마다 오줌을 싸입니다. 부끄러워서 누구에게 물어 볼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버릇을 고쳐줄 수 있을까요?

오줌싸게도 병인지 아닌지 그리고 약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 합니다.

〈충남 논산시 지산동 여운양〉

## 정신과에 가서

### 심리치료를

**(답)** 귀하께서 보내주신 내용으로는 야뇨증(夜尿症)인것 같습니다.

우선 소변검사를 하신후 이상이 없다면 정신신경과에서 상담을 하여 심리적인 치료를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 아이의 가정환경 배경등 정신적인

요인을 알아보십시오.

약물치료로는 정신신경 안정제를 사용할수도 있으나 이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고 시중에 나오는 좋은 육아책을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서울의대 소아과 홍창의〉

잇몸이 붓고 아프며 목에는 멍울이 섰는데

**(문)** 23세의 농촌 처녀입니다. 잇몸이 붓고 목에 멍울이 섰습니다. 때때로 어금니가 몹시 아픕니다. 사리돈을 먹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충치는 4개가 람 있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이가 나쁜 것 같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이가 나쁘고, 아버지는 충치를 오래 많으셨습니까 치조농농양이란 병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병일까요.

〈경기도 용인군 용인면 이순애〉

### ●우수계●

#### 완전 범죄 성공

—동기(動機)도 없다. 아리바이는 있다. 그리고 완전 범죄는 성공했다. 그 증거로 경찰서도 자살이라고 단정을 하지 않았는가. 꿈에도 볼수없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의 완전범죄다. 내가 범인이란 것을 아는 사람은 나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아무도 몰라야 할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니……。」

이렇게 철학적으로 논리를 풀어 나가던 그는 결국 그날 자기도 자살했다.

#### 두개골(頭蓋骨)

인체구조학(人體構造學)의 오소리티인 B박사를 A기자가 취재차 방문했다. B박사의 연구실에는 여러가지 이상스런 골격들이 있었는데, B박사는 어떤 두개골을 매만지고 있었다.

A기자는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니

「이것은 『시저』의 머리입니다」

「『시저』의 머리 치고는 너무 적군요」

「네, 그것은……『시저』가 4살때의 머리였으니까요」

사람은 빵으로만 살수없다

선생 「사람은 빵으로만 살수 없는 것

은 왜 그런가」

학생 「그런걸 누가 몰라요?」

치조농누증 단정 어  
렵다 자세한 질문  
있었으면

**(답)** 귀하의 질문 내용  
으르는 치조농누증  
으로 단정하기가 어렵습니  
다. 더 자세히 설명이 있  
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치조농누증이 있다면 이와  
잇몸이 뜨고, 누르면 피와

고름이 나오며, 잇새가 뜨  
며, 잇몸 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가 흔들리고 들  
뜨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세가 있으면 곧 치  
과의사를 찾아 가서야 합  
니다. 치조농누증은 대단  
히 고약하고 위험한 병입  
니다.

목에 멍울이 서는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으므로

◎ 질의 환영 ◎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기  
생충질환 예방 및 치  
료에 관한 문의 이외  
에도 일반질환에 대한  
문의도 환영합니다.  
의료계 권위자와 상담  
하여 지도해 드리겠음  
니다.

간단히 단정할 수 없습니  
다.

(이현수씨와 원장 이한수)

선생 「그럼 어디 말해봐」

학생 「버터도 있어야 하고, 잼도 있  
어야지, 빵만 먹을수는 없잖어  
요?」

주관(主觀)의 차이

세사람이 남자가 「결혼이란 어떤 것  
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20대의 A씨는 「반짝반짝 빛나는 달  
과 같아요」

40대의 B씨는 「비구름속에 가릴듯  
말듯한 달과 같더군요」

50대의 C씨는 「아냐, 폭풍우야, 폭  
풍우」

상대에 따라 다른 가르침

「여자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어야겠는  
데 자신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 상대가 누구데?」

「내 누이 동생 이야」

「그럼 뒀을 위로 데리고 가서, 떠밀  
어 버려」

